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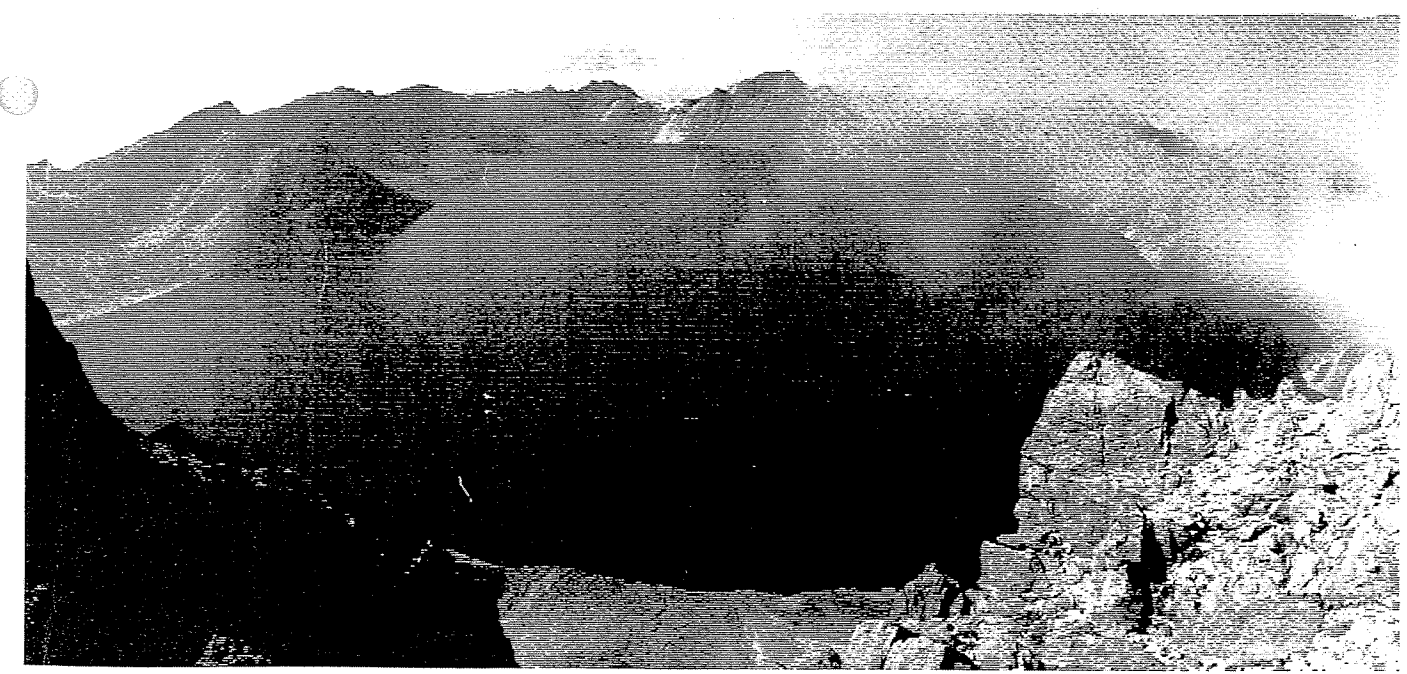
천지인문

天池人文

～我々が考え、我々が実行し、我々が支援し、我々の夢を実現する～

CHONJI CULTURE

Vol.3 No.2 1999年7月号 総第26期



天池倶楽部 発行

CONTENTS／目录／목차／目次

巻頭エッセイ <成功と成功者>-----	1
天地人物（2）-----	2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에서의 생활견문-----	3
就職の内定を獲得するには-----	7
北京市留学人员海淀区创业园进驻企业简介-----	10
만화 산삼-----	12
ある平和なる風景-----	14
현시기 민족사회변화특점과 민족교육발전구도에 대하여 -----	17
“백두산에서 10 년간도 닦고 왔어요” 당명보천법기공교실 박금룡씨-----	19
我々の夢をインターネットの上に-----	20
장백의 메아리---너도나도 한마디-----	22
韓国映画案内-----	26
天池広告-----	28
天池倶楽部第53回定例会通知-----	29

□□□□□□□□□□□□

<成功と成功者>

李東偉

成功と成功者は誰にとっても決して「陌生」（聞き慣れない）な言葉ではないでしょう。しかし、その中身に対する理解や解釈は人によって異なり、答えも十人十色であるに違いありません。では、「天池人文」の紙面を借りて成功と成功者に対する私の考えを話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企業家や有名な政治家、芸能人、スポーツ選手を成功者と呼んだら誰も異議はないでしょうが、この世に生を受けたすべての人が成功者であると言ったら多分ほとんどの人が「えっ？」と思うでしょう。しかし、自分の意思で行動できない赤ん坊や心身障害者を除き、すべての人が成功者であると私は確信します。これは、成功と成功者に対する私なりの理解と解釈から得た結論です。

角川国語辞典を引いてみると、「成功」という項目に対する解釈として「目的・志を達すること」とあります。言い換えれば、自分のある目標を実現することでしょう。従って、目的・志を達した人なら成功者と言えるでしょう。ここで強調したいのは、その目的・志または目標に対してはなんの定義も制限もされていないことです。人間は誰でも大なり小なりある目的を達したことがあるに違いありません。だとすれば誰でも成功者であるでしょう。残念ながら、世間では普通高い目標、大きな目標を達した人だけを成功者で見なしがちです。

自分は何も成功していないと思う人が多いでしょうが、すぐあなたの成功の例を挙げることができます。日本に留学したこと。中国で海外に留学することは決して誰でも実現できるような容易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留学するためには、まず留学するという目標を立てます。次に、その目標を達するために煩雑な国内の手続き、そして厳しいビザ申請など、いろいろな難関を乗り越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最終的に日本の土を踏むことによって留学の夢が現実になったことでしょう。ですから、留学自体が一つの成功の例で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いや、自分は日本に来てまだ何もできていない。これからどうなるかもわからない。だから成功とは言えない」と反論する人もいます。しかし、それは日本に来てからの、新しい成功を生み出すための目標です。

では、なぜ有名になった人は成功者と言われるが、普通の人は成功者と言われないのでしょうか。それは成功に向けての目標のレベルが違うからです。目標のレベルによって成功のレベルが違ってきます。有名人というのはもちろん高い目標を達した人たちでしょう。しかし、どんなに高いレベルの成功でも、数多くの小さな成功の積み重ね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

それなら、どうすれば大きな成功を勝ち取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私が自分なりに立てた成功の方程式があります。「目標→努力→成功→新目標→」です。具体的説明しますと、まず現実的に短期間で実現可能な目標を立てることです。高い目標、長期目標だけ立てると、どこからやりはじめたらいいか、分からなくなり、いつまで経っても成功の慶びを味わえないので飽きてしまいます。次のステップは、目標を立てたらすぐ行動に移し、最大な努力を尽くすことです。目標を立てても行動しないと、無意味だし、絵の餅になってしまいます。最後は、目標を達したらすぐ新たな目標を立てることです。ある程度の成功に満足して新たな努力を怠ると、高いレベルの成功は望むべくもありません。成功への道は螺旋状に上昇します。目標→努力→成功→新目標→を繰り返しながら、段々高いレベルの成功に至ります。

人間は生きている限り成功への道は断たされません。人生の最高レベルの成功を目指して、成功の方程式を繰り返し、成功の慶びを味わいながら、人生を楽しむことが私の成功に対する人生哲学です。

天池人物 (2)

金炳哲 (キンヘイテツ・김병철) 小池酸素工業株式会社 技術部 研究室 係長

略歴: 1963 年中国吉林省磐石市に生まれる。1981 年沈陽朝鮮族第 4 中学校卒業。同年中国鞍山鋼鉄学院大学自動制御学部工業電気自動化学科に入学。1985 年中国瀋陽工業大学大学院に入学。1988 年工学修士学位取得。1988 年中国瀋陽変圧器工場入社、助工。1990 年来日、株式会社ラック入社 (研修生)。1991 年 10 月埼玉大学工学部電気工学科研究生。1992 年埼玉大学大学院理工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入学 (1 年目は国際教育協会の学習奨励金を獲得し、2 年目からは文部省国費留学生となる)。1996 年同大学院博士後期課程修了、工学博士学位取得。同年小池酸素工業株式会社に入社。1997 年 12 月同会社プラズマ・レーザー技術研究所主任。1999 年 4 月同会社技術部研究室係長。1992 年第 4 回埼玉県留学生日本語弁論大会にて優秀賞受賞。白鷗大学第 7 回留学生日本語弁論大会受賞。1995 年日中科学技術交流協会第 9 回高度自動化賞受賞。1996 年溶接学会研究発表賞受賞。特許 10 件取得。

学位論文: a、**修士学位論文:** 3D Eddy Current Analysis in Metal Structural Parts of Large Ultrahigh Voltage Power Transformer (超高電圧電力変圧器の金属部品における 3 次元渦電流解析) 工学修士 (瀋陽工業大学 1988 年中国語)

b、**博士学位論文:** Control and Estimate of Weld Parameters in Robotic Welding by Neural Network (ニューラルネットワークによるロボット溶接における溶接パラメータの推定と制御) 工学博士 (埼玉大学 平成 8 年 3 月 英語)

研究テーマ: 産業用画像処理・音声処理、可圧縮性流体解析、温度解析など

趣味: サッカー、テニス

好きな言葉: 開始したら壮麗な旅になれ

自慢すること: たゆまず努力すること

天池倶楽部メンバーへの忠告: あらゆる機会に自分を鍛え

〒272-0035 市川市新田 2-3-1 小池酸素工業株式会社

技術部研究室 金 炳哲

Tel : 047-376-3128

Fax : 047-376-3123

E-mail: h.kin@koikeox.co.jp

http://www.koikeox.co.jp/

自宅:

携帯: 090-8342-7105

天池倶楽部例会後、韓春錫博士と談笑する
金炳哲博士 (左)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에서의 생활견문

IMF한파이후 오늘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조선족들 어떤 모습일까? 최근 한국방문중 그들 삶의 구석구석을 두루 살피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들을 그대로 적어본다.

간두포를 파는 조선족녀인들

서울에 들렀다가 한 친구로부터 마산이란 곳에 장사에 나선 조선족아줌마들이 적지않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서 온 그들이 대체 무슨 장사를 하고 있을가 궁금하여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찻길을 여러번 갈아타고 오후 2 시좌우에야 마산에 도착, 몇번이나 물어가면서 찾은곳이 그다크지않은 남새시장이었다. 시장입구에 들어서서 얼마안가 한 모퉁이에서 중국의 간두포(干豆腐)를 팔고있는 녀인을 발견하였는데 첫눈에 조선족이라는 느낌이 확연히 안겨왔다. 그것은 한국에 건두부라는 제품이 없기에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무조건 조선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 [한근에 얼마입니까?]고 물었더니 그는 넋지시 웃으면서 [말씨를 보니 중국에서 온 손님이군요]고 대

꾸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보통 [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내 입에서 이런 단어가 튕겨나오니 더구나 중국에서 온 손님이라는게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알고보니 그는 4년전에 길림에서 이곳에 시집온 녀인이었다. 내가 장사가 어떤가고 물었더니 3년전에 시작할때는 그다지 않았으나 지금은 한국인들도 건두부맛을 알기에 꽤 잘되는 편이라면서 기뻐했다.

과연 이 시장에 건두부, 찻두부같은 콩제품을 팔고있는 조선족녀인들이 적지않았는데 비교적 몇몇한 모습으로 시장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말씨나 행동거지 보고는 분간키 어려워

귀국하기 사흘전엔가 서울 종로가의 어느 장여관에서 2박1일 묵은적 있다. 이 장여관에 청소부로 있는 한 중국녀인이 있었는데 혼자 20 여개나 되는 방을 전사하느라고 무척 바빠 보내고 있었다. 허나 손님을 만날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잘 다녀가세요]라는 표준적인 서울말로 깃듯이 대해주었다. 그의 입에서는

자주 프론트, 베드, 룸 등과 같은 외래어가 흘러나왔으며 걸음도 매우 빠른 측이었다. 화장은 짙은 편이고 머리는 약간 중색으로 물들어있었다. 나는 이곳에 머물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한국녀성의 성품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내가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복도에서 나를 보자 [중국에서 온 손님이지요?]하고 불쑥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기도 중국에서 온 사람이라면서 기실 내가 표창날에 장여관에 들어설때 어깨에 댄 가방을 보고 중국에서 온 손님이라는걸 보아냈다고 했다. 허나 일이 하도 바빠기에 인사를 못드렸다면 죄송해하는 기색을 내비치었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말씨나 행동거지 지어헤어쓰타일까지도 흠잡을데없는 한국녀성으로 보아졌기 때문이다. 소개에 의하면 그녀는 흑룡강 목단강시사람으로 한국에 온지 5년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 이사이에 중국에서 온이 청소부는 철두철미한 한국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날 나는 9 시전으로 김포공항에 나와야 했기에

뜻밖에 만난 이 조선족녀성과 더 이야기를 나눌수 없는데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한국의 적지않은 회사,음식점,술집주인들은 아예 중국에서 간 조선족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는 사례가 많다 한다.구태에서 서울에 와 있는 리모라는 녀성은 주인의 뜻대로 벌써 3 년째 음식점을 맡아 경영하고 있다.주인의 말에 의하면 조선족녀성들은 인젠 한국의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비교적 완벽하게 받아들였기에 자기는 조선족이요,한국인이요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어쨌든 리모녀성이 경영을 맡으면서 음식점의 경기가 더 좋아지고 있으니 주인은 시름놓고 다른일을 보고있다는 것이다.IMF가 터지면서 한국에 술한 실업자가 생겨난 오늘에 와서도 리모와 같은 녀성들은 실업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점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의 한국사회의 적응정도를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는가.

전에 한시기 한국인들은 말씨나 행동거지,옷차

림새를 보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군]하고 판단하기가 일쑤였다.92 년도에 친척방문으로 한국에 갔을때 어느 한번 서울역에 내렸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술한 사람들속에서 어떻게 나를 집어넣는지 탄복이 갔다.허나 이튿날 이 일을 처숙부한테 얘기했더니 뭐 그리 탄복할일이 아니라고 했다.당시에는 확실히 좀 자세히 살펴만 본다면 중국에서 온 사람이란걸 보아낼수 있었던 것이다.한번은 전화로 [동무]를 찾는다는 말을 했다가 대방으로부터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친구라고 해]라고 핀잔을 들은 일이 있다.허나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마저도 [동무]라는 말보다도 [친구]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있으니 다시는 그와 같은 [꾸지람]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인젠 말씨,행동을 보고 조선족이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던 시기가 지난 것이다.또 오늘 중국과 한국,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래왕, 교류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때에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봤자 큰

의의가 없는 것이다.한국에 있는 한 친구는 [다 같은 민족이면서 자꾸 조선족이요,한국사람이요 말할게 뭐 있는가]고 불만을 토로했다.해당인사들은 전에 비해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문화적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들어 평형을 이룰때면 모든 알룩이 잇달아 해소될것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한국정부의 두가지 골치거리

조선족들이 80 년대초부터 한국나들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한국정부에 약품으로 인한 골치거리를 조성시켜주었다.이 풍파가 고조를 이루었던 91,92 년도에 한국 여러 텔레비존 방송국에서 [골치 아픈 중국의 약품]이라는 프로를 작성해 강타를 안겨서야 이 골치거리가 해결을 보았다.허나 지금은 두가지 골치거리가 생겼다.하나는 불법체류자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위장결혼문제이다.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11 만 1000 여명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는데 대부분이 조선족이다.위장결혼자에 대해서는 집계할수없으나 중국에서 시집온 녀인이 잃어졌다거나 또는 리

혼했다는 소문이 자주 귀에 들려왔다.

한국정부에서는 벌써 몇년전부터 정기적으로 기한을 주어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을 떠나게 하는 조취를 취하였으나 아직 원만한 해결을 보지못하고 있다.하여 현재 불법체류자가 더 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입국검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김포국제공항을 통과할때 약품검사보다도 각종 사증에 대한 검사가 극히 엄격했다.려권의 진가를 감별한 후에도 초청인의 정황,가야 할 목적지,해당되는 주소,전화번호 등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이와 같은 검사에서 그 어떤 위장도 드러나고야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을 떠나 려행도중에도 가끔 [문초]가 뒤따랐다.부산시 어느 호텔에 들어있을 때 지방안전부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았는지 초청자에게 내 행방을 물어왔다.말로는 인신안전을 위해 그런다지마는 무엇때문인지 내 귀에는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았다.

불법체류자들에게 뜻하지 않던 비극이 들이닥

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었다.집이 통정에 있는 정모는 밀항으로 한국땅에 들어섰다가 한달만에 신고당해 송환되었는데 돈 7 만원 때운건 물론 2 달 동안의 철창생활을 면치 못했다.돌아온 후에도 빚 채촉에 못이겨 집에도 들어갈수 없는 신세였다.한 조선족 젊은이는 한국에 가기는 했으나 일자리가 맞갖지 않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거의 끼니도 에울수없는 신세로 전락,그래도 한 마음씨 착한 교수가 밥을 먹여주고 돈을 대주어 집에 돌아올수 있었다.지금 한국을 살살이 뒤지면 일자리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없으면 찾기 힘든 실정이다.IMF 영향도 있겠지만 마음놓고 수소문할수 없기때문이다.92 년도 상반기까지도 서울역 지하철에 가면 일자리를 구하려 나온 조선족들이 매일 600-700 명,많을 때에는 1000 명도 넘었지만 지금은 정황이 다르다.이번 겨울에 의식적으로 서울역 지하철에 둘러보았는데 일자리를 찾으려 온 조선족들이 모두 어디에가 숨어있는지 좀

쫓쫓한 기분이였다.

그런데 료해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들이기는 하지만 모두 열심히 일하고있는 모습들이여서 회사책임자들의 신임을 얻고있는 실정이었다.귀국하는 항공기에서 한국에 7 년 동안이나 불법체류를 하고 귀가하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회사를 떠날때 사장이 매우 아쉬워하면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나오라고 하더라는 것이였다.그가 너무 열심히 일해줬기에 놓아주기 아쉬웠던 모양이다.경주로 갈때 길옆 음식점에 들어가 식가한적 있다.주인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이 음식점에 근처 건설현장의 일꾼들이 자주 오는데 알고보니 말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 했다.인상이 어떤가고 물었더니 점심에 오든 저녁에 오든 술은 먹지않고 식사는 많,이,빨리 하는 상태,면에서 이곳에 와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어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가 잘 살라는 말로 위안해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불법체류자들은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는 신세를 면

치 못하고있다.2년전에 대구에 가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려고 몇번 전화를 걸었으나 끝내는 실현 못했다.그는 [까막 잘못했다가 신고당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그래 이러한 국면은 어느때 가서야 종말될것인가.안타까운 마음뿐이다.(길림신문 전춘봉 기자)

中 10월부터 새 화폐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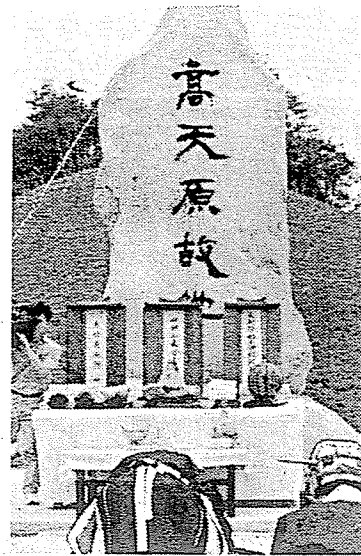
건국 50주년기념

【北京=池海範기자】오는 10월 1일부터 중국에 새로운 화폐가 발행돼 기존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며, 그동안 없었던 20위안(元) 짜리 지폐도 새로 발행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銀行)은 2일 '제5차 신 화폐 발행 공고'를 내고, 오는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새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새로 발행되는 화폐는 100위안(元), 50위안, 20위안, 10위안, 5위안, 1위안, 5자오(角), 1자오 등 8종이며, 이미 사용 중인 '제4차 인민폐(人民幣)'와 1대1의 가치로 통용된다고 밝혔다. 새로 발행되는 100위안(한화 약 1만4000원·사진) 짜리 지폐 전면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얼굴이, 뒷면에는 인민대회당의 전경이 들어간다.

/hbjee@chosun.com



“日王 고향은 高靈”

가야大에서 비석 제막식
日학자등 500여명 참석

‘일왕(日王)의 고향은 경북 고령이다.’

일본 왕가의 유래를 주장하는 비석이 28일 오전 11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가야대학교 내에 세워졌다. 이날 제막식을 가진 비석에는 ‘고천원 고지(高天原故地)’라고 쓰여져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고천원은 일왕의 시조들이 살았다는 곳을 뜻한다. 제막식에는 일본 학계 인사 60여명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준비한 가야대 이상히(40) 가야문화연구소장은 “일본 학계에서도 일본 건국신의 하나인 다카미무수비노미코토(高皇產靈尊)가 가야 고령 출신으로 그 이름은 고령(高靈)과 황산(皇産·천황을 산출한다는 뜻)의 두 글자로 뒀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제막식 직후 열린 학술 발표회에서 마부치 가쓰오(馬淵和夫·81) 일본 쓰쿠바대 명예교수는 ‘고대 한일 교류에 관해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서기에는 천손(天孫)이 고천원에서 신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고천원은 신라와 가까운 서방에 있는 나라로 산중의 분지라는 조건에 맞는 곳은 고령뿐”이라고 말했다.

/高靈=具聖宰기자 siku@chosun.com

“수련원 火災사건은 ‘빨리 빨리’ 韓國病”

英 BBC방송 꼬집어

어린이 수련원 화재사건은 “빨리 빨리”만 의치며 인명(人命)이나 안전은 완전히 뒷전으로 미루는 한국의 고질병을 또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다음은 ‘안전, 경제기적의 대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화재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즉각 방화시설 미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화재는 공공안전 부문 세계 최악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참사 중 한 건일 뿐이다.

94년 10월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했고, 이듬해 4월엔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일어나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0여명이 부상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년간 각종 사고로 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현상이 안전보다는 눈 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속성(速成)위주 개발 방식 탓인 것으로 보고 있다.

50여년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자발적 의지와 미국의 원조 아래 대규모 산업화 계획에 착수했고, 그 결과 IMF사태 이전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아시아 경제발전 기적의 대명사로 불렸다.

비평가들은 한국이 선진국을 향한 위험천만한 경주를 벌이면서 안전이나 건축기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간 이번 화재사건으로 한국민들은 모든 분야에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尹熙榮기자 hyoon@chosun.com

就職の内定を獲得するには

徐 光哲

1999. 7. 12

日本経済の不景気により、去年の日本の失業率が4.4%歴史上最高で、就職率はバブルの時期よりも低い、歴史上最低で超氷河期と言われているそうです。日立、東芝、NECなどの日本の電気産業を代表する大手電気メーカーが相次いでリストラ計画を発表し、1985年前まで日本国内で国際通信を独占した通信の大手 KDD(001番国際電話など)も今年に30%のリストラ計画を発表しました。今年に入り、求人会社は募集人数をもっと絞り、就職状況はますます悪化しつづけています。

このような不景気、リストラだらけの時世に、留学生として日本で日本人と競争し、就職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だろうとは思いましたが、一応日本の就職戦争に挑戦してみて、だめだったら博士課程に入ろうと考えていました。

私が就職活動を始めたのは今年の2月からだったが、準備は去年(1998年)の10月からでした。10月からSPI(適性能力試験)の勉強をしました。12月からリクルートナビの就職手帳(URL: <http://www.recruit.co.jp/RN/>)などに登録し、会社のホームページを見たり、資料を請求したりしました。私が登録して資料を請求した会社が100社以上ですが、実際に会社の説明会にいった入社試験を受けた会社は7社ぐらいです。最初の5社は一次試験が失敗に終わり、6社目の会社は一次面接、SPI適性試験、最終役員面接まで合格し、一週間あとに内定の通知をもらいました。会社の名前は東京 NTT データ通信システムズと言う会社で、NTTグループの中の子会社であります。

自分の就職活動を振り返ってみると、内定の獲得に一番大事だったのは、事前にしっかり立てた就職活動の計画、事前の会社の研究、失敗から学んだ経験だったと思います。次に私が自分の就職活動を通じて感じたこと、考えたことを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今年就職活動をやっていたらの方、来年に就職を迎える方々に少しでもご参考になっ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1. なぜ留学生は日本で就職するのが難しいか。

(1) 年齢

これは一番重要な条件で、非常に乗り越えることが難



しい条件です。外国人留学生が新入社員として応募できる年齢は普通は日本人より2~3歳上で学部は24、25歳まで、修士は26、27歳までが多いです。つまり修士卒業で28以上は新入社員として応募できない会社が多いです。中途採用または、契約社員で入社する可能性がもっと多いと思います。中途採用、または契約社員として入社すると、普通は給料が新卒より高いです。ただし、同時に要求される能力などはもっと厳しいはずですよ。

(2) 専攻

理工系は文系に比べて就職しやすい場合が多いですが、理工系にもいろいろな専門があって、専門性が強い専攻例えば、情報関係、電気、電子、通信、機械、制御関係などの専攻は基礎学科、つまり数学、物理学より有利であるが、絶対ではありません。理工系が文系より有利だとしても絶対ではありません。重要なのは会社がどういう人材を必要としているかと自分がどれぐらいの実際の能力をもっているかです。もう一つは運だと思います。

(3) 学校の名前、有名度

これは説明しなくてもご存知だと思います。

(4) 日本語と英語

普通朝鮮族の場合は日本語の問題はあんまりないです。その代わりに英語ができない場合が多いです。他の分野はよく分からないですけども、ソフト関係の会社は大企業の場合は英語を要求する会社が多いそうです。しかし、中小ぐらいのソフト会社は英語の試験がない場合が

多いらしいです。あるとしても SPI 試験の中に一番基本的な内容で含めているだけです。私も英語が下手なので英語ですごく困りましたが、実際会社の入社試験の案内をよく研究してみるとソフト関連の会社とか通信関連の会社、メーカなどを含め英語の試験がないのが多いです。その代わりに近年に入っているテーマを出して、その場で小論文を書かせる試験が増えているらしいです。だから会社の説明会に行く前にどんな試験があるかをよく研究してから行ったほうがいいだろうと思います。

(5) SPI 適性テスト

就職活動をやっている方だったらみんなご存知だろうと思いますが、ほとんどの会社が新卒の入社試験に SPI 適性テストという試験を行っています。見た目には反対語、同意語などの簡単そうに見える日本語問題と中学校レベルぐらいの数学問題、または物理学の簡単の問題、もしかしたら英語も入っている試験問題もあります。誰でも時間をかけてやれば全部解けそうな問題です。だけど、これを絶対軽視しては行けません。なぜならば、これは企業側で受験に来た人を絞るための最初の手段であるためです。ここでは「まあ、この人は外国人だから成績がちょっと低いのは当たり前である」とは、どの会社の人事だとしても思ってくれないです。この試験に合格できなければ次の試験にも、面接にも進めません。実際、簡単そうに見える SPI 試験でも短い時間内に非常に莫大な量の問題を解かせて、緊張して練習する時より解けない受験生が多いらしいです。最近は平均で一問に 45 秒で解くことが要求されている SPI が増えているそうです。かなり慣れていないと始めて見た問題を 1 分間で一問題を解けるのも難しいだと思います。

SPI 対策として一番重要なのはまず、慣れるまでできるだけたくさん練習をして、問題を解くスピードを上げることです。私は 3 冊ぐらい解いて見ました。最初は遅かったが、やっている間にだんだん慣れて来ました。SPI の試験を受ける回数が増えることによって、最初の試験よりずいぶん慣れてきた感じがあります。最初に SPI を受けたときはたぶん 30% もできて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その中にまた間違ったのがどれぐらいあったか分からないです。

次は正確に解くことです。SPI には誤謬率というのが要求されていて、問題をたくさん解いても間違っていると逆に減点されるからです。

もう一つは日本語の部分では読解の部分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です。日本人を対象として出した問題だから

限定した時間内に全部正確に解くのは不可能だと思います。読解の部分はまず文章の中身を見るのではなくて、問題から見ます。それで文章の中で必要な部分だけをすばやく探して見てできそうな問題だけをまず書いたほうが効率的だと思います。

2. 会社側はどんな人材がほしいのか?

私が就職活動を始める前に何人かもう日本の大企業で就職している先輩にこの問題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学部、または修士の新卒として募集をする場合、会社側はどれぐらい仕事をやった経験があるか、どれぐらいのソフトを作れるかよりも、この人は基本的な素質、知識を持っているか、自分の専門と何かやりたいことを持っているか、他の人と仲良く仕事をやって行けるかをもっと重視するそうです。つまり就職する前に実際のどのぐらいの能力を持っているかよりも、うちの会社で大きく育てることができる人材であるかが企業側にもっとも関心がある問題です。中国語では「可塑性」と言えます。

3. 面接では何が重要なのか。

(1) 日本で何年働くつもりか?

少なくとも 5 年、10 年がいいと思います。「私は国に帰りません。一生会社のために頑張りたいです。」と答える人もいますが、場合によっては逆によくないこともあります。それは日本の会社は入社年数によって給料がだんだん上がりますが、40、50 才を越えると、実際仕事で創造できる利益が給料に比べて相対的に少なくなる傾向がありますので、外国人に対しては自分の一生を会社に捧げたいというのが会社にとっては好ましくない場合もあるらしいです。それもなぜ私は日本で 5 年、または 10 年ぐらい働きたい原因を間接的に説明したほうがいいと思います。

(2) なぜ日本で就職しようとするか?

これも重要な問題であるし、答えるのも難しい問題です。面接に行く前に自分でも納得できる理由をよくまとめたいほうがいいです。

こんな先輩がいました。「中国も今不景気で就職するのがなかなか難しくて…」と答えたらいいです。「あれ、中国でも就職できないやつを…」もちろん、二次面接には名前を呼ばれなかったそうです。それではどう答えばいいのでしょうか。「私はぜひ日本でやって見たいことがありますして…」の積極的な答えのほうがいいのではな

いでしょうか。あなたはどうか答えるでしょうか。

(3) なぜこの会社を選んだのか?なぜうちの会社しかないのか?

一番重要な問題で、どの会社でも一番気にする問題です。面接官が「なるほどね!」というぐらい説得力がある理由を「創造」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会社を徹底的に研究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入社して何をやりたいのか?自分の夢を持っているのか?

必ず履歴書に書いたのと一致であること!会社で一番ほしいなのは目的意識がはっきりする人材です。ほかの人から命令を受けてからしか動き出さない目的意識がない人は私が社長だとしても募集しないです。

(5) 元気がいいか?

大きい声で、自分が言いたいことを簡単に、かつはっきり言うことが大事です。自信の声を聞かせてください。

(6) 自分をよくアピールできるのか?

自分はどんな研究をやっているかを分かりやすく説明し、なぜこの研究を始めたのか、どんなとこれで使える可能性があるか、自分は何ができる、こんなことでは誰にも負けないという自信を持っているか、自分の優点、欠点をよく説明できるかなどでしょう。

(7) 根気を持っているか?

(8) どんどん新しいことにチャレンジできるか?

(9) パソコンは使えるか?プログラミングは?

(10) アルバイトは?サークルは?

ただ、どんなアルバイトをやりました、どんなサークルでどんな役をやりましたではなくて、その中で何を勉強したか、何を考えたか、何が分かったのかをはっきり答えるのが大事です。

私が行った会社の面接では大体こんな問題が多いでした。面接で大事なものは、きれいな服装、正しい言葉使い、日本人の基本的なマナをよく守ることが前提条件となります。留学生だからどうしても緊張しすぎて言葉が詰まっちゃったり、間違ったりすることは同然なことなので、言葉が詰まっちゃったりしても、「だめだ!」と思わ

ないで、もう一回、言いたいことを正しく、はっきり言い直すことがいいたろうと思います。絶対、そのままたまってしまうわないで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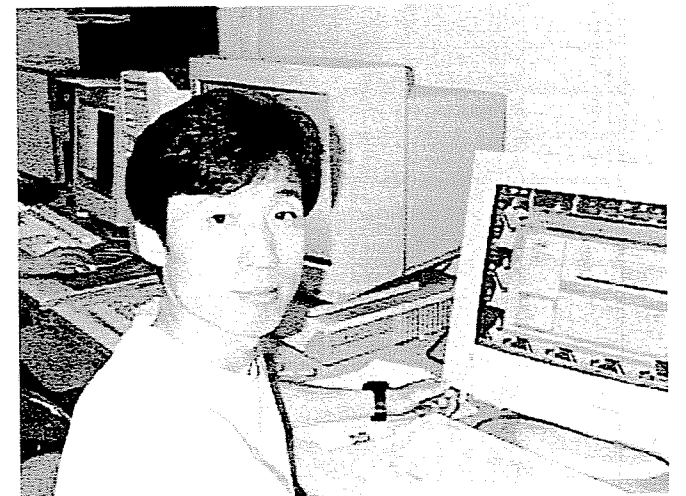
就職でもう一つの重要な問題は計画を良く立てて、会社を良く研究してから行くことです。できるだけたくさんの方にチャレンジするのも重要ですが、自分が一番行きたい何社ぐらいは徹底的に会社を研究してから行くのほうがいいだろうと思います。会社の情報を知るには手紙で資料を請求する方法、インターネットで会社のホームページにアクセスして見る方法などがあります。どちらか一つではなくて、できるならば資料も請求し、ホームページも見ようほうがいいでしょう。必ずしも同じではないから。そのほかにもその会社にいる知り合いの人を尋ねて、会社の奥の情報まで研究した方が面接の時に非常に役立ちます。

以上、就職に関して私の失敗経験を含めて内定をもらった後の感想などをお話しました。就職活動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し、9 月ごろに二次募集がある会社も結構あります。就職がまだ決まっていない皆さん、自分に自信をもって頑張ってください。あなたならきっと成功します!

個人情報

吉林省延吉市の出身、1971 年 11 月 26 日生まれ、吉林工業大学電子工程系を 1994 年卒業、1997 年 4 月に日本に留学、目白大学言語文化学科で一年間勉強した後、現在、電気通信大学大学院電子工学専攻金子研究室に所属、顔画像情報処理、ヒューマ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関連研究に従事。

E-mail: nxgz@apple.ee.uec.ac.jp



北京市留学人员海淀创业园进驻企业简介

目前创业园内有44家高科技企业，按序号分为9组，每组5个企业，请按组号查询企业详细内容：

序号	公司名称	创办人（留学国、学位）
1	北京悟能科技有限公司	王安生（日本博士）
2	北京奥瑞金种子科技开发公司	韩庚辰（美国博士）、杨雅生（美国博士）
3	北京土人景观规划设计研究所	俞孔坚（美国博士）
4	北京国创万维网络技术有限公司	莫小康（美国博士）、吉京（泰国硕士）
5	北京启明星辰科技有限公司	王佳（美国博士）、郑元芳（美国博士）、林成江（美国博士）、严立（美国硕士）
6	北京上地哈佛医药技术公司	谭文（美国博士后）、李晶（加拿大博士）
7	北京晨威医疗电子设备有限公司	张远（美国博士）
8	北京爱康明医药技术有限公司	王劲峰（美国博士、美国博士后）
9	北京爱博精电科技有限公司	王良（美国博士）
10	北京慧讯信息技术有限公司	孙晓青（美国博士）
11	北京鹤来科技有限公司	计成（德国博士后）
12	北京浩志科技发展有限公司	张送根（俄罗斯博士）、嵇世山（俄罗斯博士）、胡华龙（俄罗斯博士）
13	北京科诺商用软件有限公司	李军（美国博士）、蔡志强（美国硕士）
14	北京联合恒盛科技有限责任公司	宛薇（美国MBA）、徐震春（美国博士）
15	北京保时洁精细化工有限公司	王安生（日本博士）
16	北京山景先导科技有限公司	李伟京（美国硕士）
17	北京四方台数字技术有限公司	徐建年（日本硕士）
18	联博网络技术（北京）有限公司	张鲸（美国硕士）
19	北京联硕软件技术有限公司	张鲸（美国硕士）
20	北京捷通软件技术公司	李红（美国硕士）、张连毅（美国硕士）
21	北京峰科技技术公司	李国峰（美国硕士）、徐武清（美国硕士）、李莉（美国学士）
22	北京中航科创质量技术开发中心	杨跃进（美国研修）、杨育中（比利时研修）
23	北京东方纪元软件技术有限公司	李松（日本硕士）、朱峰（日本硕士）、张力（日本研修）
24	北京锐视博科技发展有限公司	梁昕（泰国硕士）

25	北京保力德环保设备有限公司	刘浩（美国硕士）、陈彦（美国硕士）、吴力生（美国硕士）
26	北京威力恒科技开发有限责任公司	潘克歧（日本研修）
27	北京市核特电机控制技术有限公司	赵正言（日本硕士）
28	北京东方联华科技有限公司	高学山（日本硕士）
29	北京奇讯通无线数据传输有限公司	连波（美国硕士）
30	北京安达利特科技有限公司	郭超美（法国博士）
31	北京瑞琦时代技术开发有限责任公司	鞠仲谋（美国博士）
32	北京比林思网络技术有限公司	鞠仲谋（美国博士）
33	北京格力特科技有限责任公司	郭颂（美国博士）
34	奈孚朗特网络通讯技术（北京）有限公司	伍晓东（美国博士）
35	北京桀亚莱福生物技术有限公司	胡杰（美国博士后）
36	北京普人生物技术有限公司	秦泽荣（日本博士后）杜立新（法国博士后）傅晓丽（美国博士后）
37	北京华纬讯科技有限公司	王生安（美国硕士）
38	北京中通软科技有限公司	蒋干泉（日本研修）
39	科腾计算机（北京）有限公司	黄雷（美国硕士）
40	北京瑞蒙特信息系统科技有限公司	孙冰（日本研修）
41	北京同步天地计算机网络技术有限公司	沈小滨（新加坡研修）、王丽华（新加坡MBA）
42	北京吉马飞医疗器材有限公司	归来（法国博士、法国博士后）
43	北京海博创业科技有限公司	李建保（日本博士）、谢建新（日本博士）
44	（名称未定）	张军（日本博士）、齐东平（日本博士）

统计日期截止至1999年4月5日。

净化规范中介市场·支持公民自费留学
我国加强自费留学中介服务管理

本报北京7月5日讯·记者魏芳报道：为进一步做好出国留学工作，保护自费出国留学当事人的合法权益，加强对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活动的规范管理，经国务院同意，教育部、公安部和国家工商行政管理局联合制定的《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今天正式颁布实施。

教育部副部长韦钰说：“《管理规定》的制定实施是社会各界普遍关注的一件大事，是贯彻中央制定的‘支持留学，鼓励回国，来去自由’的出国留学方针，落实科教兴国战略和‘面向21世纪教育振兴行动计划’的又一项重要举措和具体行动。”

据介绍，近年来，我国自费出国留学

的人数呈上升趋势，社会上也随之出现了许多与自费出国留学有关的中介服务机构。其中一些机构未经批准，擅自经营、发布虚假广告，进行非法招生，某些单位和个人甚至借机从中牟利，坑骗家长和学生。这不仅使自费出国留学人员的权益受到侵害，也扰乱了正常的出国留学管理秩序、公民出入境管理秩序和正常的中介服务市场秩序，在国内外造成了不良影响。社会各界迫切希望和强烈要求对自费出国留学中介活动能开明渠、堵暗道，采取措施进行规范管理。

根据《管理规定》，申请从事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业务的机构应先经各

地教育、公安部门审核，报教育部、公安部进行资格认定，然后到工商行政管理局进行登记，并取得营业执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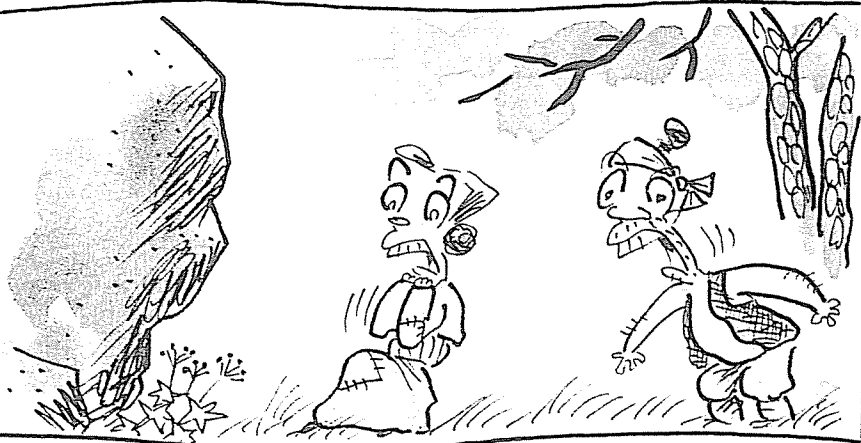
教育部、公安部和国家工商行政管理局要求各地教育、公安和工商行政管理局认真贯彻执行《管理规定》，采取有效措施，净化整顿目前的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市场，对于非法机构要采取坚决措施予以查处；同时要认真作好申办机构的申请受理和审核工作，使各地的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活动尽快步入正常发展的轨道。

据了解，由教育部、公安部和国家工商行政管理局联合制定的《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也将近期向社会公开发布。

산삼



산골짜기 너와집에서 화전을
일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삼월이라
간밤에 용 한 마리가 거북바위 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나서 아침에
뿔산 거북바위로 가봤더니 바로
산삼밭이다.



백년도 넘을 산삼 서른세 뿌리를 팔아
캐온 삼월이 내외는 부들부들하고
감격의 눈물을 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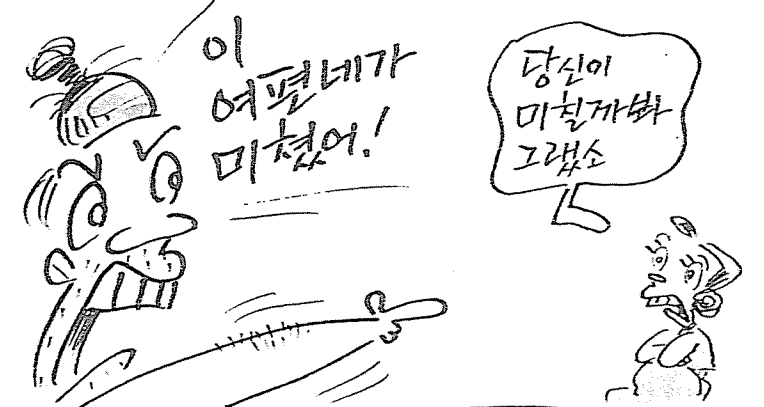
삼월이 남편 갑작스러운 산삼을
팔아서 천석꾼 부자가 되는
꿈을 펼치는데



이튿날 아침, 갑자기 눈을 뜨자
삼월이 산삼을 토막쳐 한접시
들고와 한다는 말이



뿌인가 어디, 세뿌리는 토막쳐
오고 스무 뿌리는 술에
넣고 삶고 있었다.



사람이 재화가 넘치면 고래등 기와집에 하인을 두고
그 다음 술에 취하고 첩을 얻고
놀이판에 뛰어들어 가는 게 순서!



삼월이는 남은 산삼 열 뿌리를 팔아
아랫동네에 있는 열두마지기,
밭 열두마지기, 그리고 아담한 집한채를
장만하고, 지난날처럼 일을 했다.

● 青一色の朝鮮族村

今に思っても不思議な思いがする。私は19歳になって大学に行くまでは漢語（中国では中国語を「漢語」と呼ぶ）で話をしたことが非常に少なかった。それまでは正式に漢語で話してみたことがなか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年に数回程度漢族の人と話した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せいぜい二、三句の片言ぐらいである。信じがたいことであるが事実である。

私が生まれ育ったのは中国の延辺朝鮮族自治州汪清県西崴子郷の東明村である。西崴子郷は六つの村から成り立っており、山間部にある三つの村はほとんどが漢族が住み、平地の三つの大きな村には多数が朝鮮族が住んでいた。特に東明村は人口700人ぐらいの村であるが、私がいた頃には漢族は一戸しか住んでおらず、他に奥さんが朝鮮族で、主人が満州族の家が一戸いた。その家の満州族の主人は朝鮮族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生活をし、子供たちは朝鮮語だけを使っていた。一戸の漢族の家は東明村と山を一つ隔てた汪清鎮（県の所在地）から文化大革命後に下放されたきたものであった。東明村に來た最初の頃は朝鮮語が全然できなかったが、村に住み着いて10年ぐらいになると小さい子供たちは朝鮮族とあまり変わらないほど朝鮮語を使いこなし、中には大きくなってから朝鮮族と恋愛する子供までいた。

こうするとこの村はほとんど青一色の朝鮮族の村である。

● 全く違う民族性

村は外見だけ見ても朝鮮族村であることがすぐ分る。朝鮮族の家は伝統的な朝鮮民家の様式をそのまま受け継いでいて、屋根が上から四方へ向かって広がる緩やかな曲線を帯びた長方形であり、家の正面の外壁は必ず白いモルタルを塗っていた。もちろん、家の中も朝鮮式のオンドル構造である。これに比べると、漢族（この文章では延辺地域に住んでいる北方の漢族を指す。同じ漢族と言っても南方系の漢族は北方とはかなり違う）の家は屋根が三角形であり、曲線美をあまり出さず、家の正面の外壁を白いモルタルで装飾することもあまりなかった。家の中は北方式のオンドル構造であるが、朝鮮族のオンドル構造とは結構異なっていて、台所が居間と隔てられ、オンドル部屋の中にも床があってそこへ靴を入ったまま入る。朝鮮族の家は台所と部屋が連なり、部屋はオンドルだけとなってそこが居間兼寝室であり、土足では部屋に入らない。

生活用具と農具も朝鮮族と漢族とでは結構違っていた。朝鮮族の家の釜は丸くて中が深く、上に鉄の蓋を載せるが、漢族の家の釜は中が比較的浅く、もう少し大きい方であり、蓋は普通は板でできている。食刀、まな板も一目見ただけで朝鮮族と漢族

のものが違う。朝鮮族の「シッカル」と呼ばれる食刀は刃が狭く尖ったものであり、漢族の「菜刀」が刃が広くて刀自体も大きい。じゃがいもなどを剥く時は朝鮮族の食刀が使いやすいが、大きな肉の塊などを切る場合は漢族の「菜刀」がよく効く。まな板も朝鮮族のものは板を長方形に加工したものであり、漢族の場合は丸い原木を10センチぐらいに切ってそのまままな板として使っていた。

同じ牛車でも、朝鮮族の「スレ」は平面板の両側に板壁があり、漢族の牛車は平面板のみである。不思議なのは漢族の農民は牛以外にも、馬と驢馬を使うのであるが、朝鮮族の農民は農業に牛だけを使う。両民族の性格の違いを一番端的に見せてくれるのが、草取りである。「ホミ」と呼ばれる朝鮮族の草取りは柄が短く、草を取る時は腰を曲げて地面に屈み込んでせつせと仕事をするわけである。ところが、漢族の草取りは柄が長いので、腰を伸ばしたままゆったりと仕事が進める。同じく中国に住んでいても、朝鮮族はどこかせつかつちであり、生活用具、農具などを見ても北方の漢族よりサイズが小さい。ここが半島民族と大陸民族の違いであろうか。

食生活も朝鮮族と漢族はかなり違っていた。朝鮮族は主食が米であり、漢族はお米よりも面を多く食べていた。朝鮮族は副食にキムチ、味噌汁などを多く食べ、野菜などは生で食べることが多い。漢族はどこかと言えば、料理に油を多く使い、野菜なども炒めて食べることが多い。

● 漢族が少数者の学校

東明村の人々は平素は朝鮮語だけで生活し、村では漢語が充分に話せない人が多かった。私自身も小学校から高校までは朝鮮語で教育を受け、漢語は小学校2年から学んだが、授業内容を見ると、週に二コマだけの漢語があるように外国語を学ぶのと同じくらいであった。

私が通った西崴子郷の小学校・中学校では朝鮮族と漢族、それに少数の満州族の学生が共学していた。普通、各学年には二クラスが朝鮮語班、一クラスが漢語班があつて、朝鮮語班には朝鮮族だけであり、漢語班には漢族と朝鮮族・満州族の学生がいた。朝鮮族の学生の中には小学校から漢語班に編入して、漢語で教育を受ける学生が一部いたが、漢族・満州族が朝鮮語で教育を受ける場合はついなかった。これがマイノリティとマジョリティの違いであると思われる。

ところが、西崴子郷の小・中学校では漢族の学生たちがまるで少数民族のようであった。学校の朝会とか大きな集会とか校長先生はいつも朝鮮語でお話をしていた。多分漢語でお話をすると朝鮮語班の学生たちはほとんど聞き取れなかっただろう。しかし、朝鮮語だけで話をする漢族の学生はほとんど分らない。それでも漢族の学生数が少なかったからそういう風にしたたろう。

東明村の日常生活はすべて朝鮮語で行われ、学校でも朝鮮語で教育を受けたため、冒頭に書いた通り、この村を離れるまでは私は完全に朝鮮語の空間で生きたわけである。実に不思議なことである。東明村と山を一つ隔てた汪清鎮には漢族が多く住んでおり、そこは漢語が優位な空間であるのに、東明村は全く別の世界であった。

● 平和共存の訳

異民族同士が近くで暮らしながら、それぞれが自己の民族性を保持し、且つ平和的に共存しているというのが、私の東明村での民族体験であり、私の脳裏にいつまでも残っている平和なる風景であった。

私の故郷で異民族同士が平和的に共存できたのは、いま考えてみると幾つかの要因によるものであった。

まず、それぞれの民族が相手を他者として認め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朝鮮族と漢族はかなり違う民族性と生活習慣を持っていたが、それを自然として認め、お互いに相手の生活に干渉したり、民族性を改めようとしなかった。そのために朝鮮族と漢族は同じ村に住んでいる場合も混住することは少なく、それぞれ居住区が分れていた。日常生活においてもお互いの往来が少なく、朝鮮族は朝鮮語による生活、漢族は漢語による生活を送っていた。東明村に唯一戸だけいた漢族の家も、朝鮮語を非常にうまく使っている家も家の構造から生活様式まで漢族の習慣をそのまま守っていた。村の人々もそれに別に抵抗感があるようなこともなかった。

次に、宗教上の対立がないことが上げられる。朝鮮族と漢族の間には信仰が全く異なる宗教が存在しなかった。民族の違いによる葛藤は存在しても信仰の違いによる根本的な対立は存在しなかった。それに朝鮮民族は伝統的に漢字・儒教文化圏に属していたので、朝鮮族と漢族との間には文明の違いによる対立も存在しなかった。それだからと言っても朝鮮族が簡単に漢族に同化されるわけでもなく、自分の民族性は

濃厚に保持していた。

それから、多元文化を認める国の政策である。中国では多民族国家であることが当然視されており、少数民族の居住地域では各種レベルの自治が実施されている。これは日本が先進国と言われながらも、単一民族神話に拘って容易に多元文化社会を認めていないのとは対照的である。

私の故郷での民族体験はある程度の特異な環境の中から生まれたものであり、中国のすべてのマイノリティが私と同じような民族体験を持つとは限らない。それでも、ユーゴスラビアのコソボ自治州でつい最近発生している血なまぐさい民族的対立を耳にするたびに、故郷で異民族同士が共存していた平和なる風景が眼前に浮かぶ。民族と民族の間では対立ばかりではなく共存も可能であるということをそこから学ぶ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新华社广州 7月6日电
(记者牟文建) 中国银行广东省分行日前向社会推出了出国留学贷款业务。

在此之前, 中国银行广东省分行已在国内率先推出教育助学贷款等个人消费贷款。至6月30日, 中国银行广东省分行共接受有关教育助学贷款的电话咨询2万多个, 目前正在受理的消费贷款个案150个, 已办理了贷款发放手续的有60多笔。

中国银行此次推出的出国

广东推出 出国留学 贷款业务

留学贷款条件比普通教育助学贷款的条件更为宽松。普通教育助学贷款申请期限为不超过5年, 而出国留学贷款期限一般为1至6年, 最长可达10年; 普通教育助学贷款金额不超过10万元, 而出国留学贷款的最高金额可达到50万元人民币。

此间业内人士指出, 中国银行可利用其分布于世界各地的600多家分支机构, 为申请助学贷款出国留学的学生提供全球性金融服务, 因此出国留学贷款业务发展前景看好。

(전호의 계속)

개혁개방후 민족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곧 교육환경의 변화를 말해주는 데 그것이 우리민족 교육발전에 주는 영향 역시 매우 크다.

첫째, 조선족 농촌학교의 학생래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소수민족의 민족교육은 소수민족지역 사회성원들의 수량 및 그 집거 정도와 직접 관계된다. 농촌로력이 도시로의 이동으로 하여 조선족마을의 인구가 줄어들고 마을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과 산악제한, 질 높은 도시학교로의 전학 등 원인으로 하여 농촌학교는 학생래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지어는 폐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변만 하더라도 1984년에 비하여 농촌의 조선족학교수는 71개소가 감소(합교까지 포함)되고 학생수는 10,625명이나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워낙 학생래원이 적은 산간마을이거나 산재지구의 농촌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민족 교육 앞에는 당연히 학교분포를 조절하여 학교를 꾸리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래원이 적고 교육질이 낮은 학교들은 통합하여 꾸리면 제한된 자금을 집중하여 쓸 수 있고 능력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원을 선택하여 쓸 수 있어 교육질 제고에 유리하다. 그러나 또 이와같이 몇개 학교를 집중시켜 한두개를 꾸리면 불리한 점도 나타나게 된다. 즉 원거리 통학생과 기숙학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학시간이 길어 학생의 심신발전에 영향주거나 기숙생가정에 경제부담을 증가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

한 것들은 의무교육보급에 직접 영향주게 된다. 그 외에도 학교분포를 조절하거나 통합할 때 학교가 그 지역사회의 문화중심으로서의 역할과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도시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성원들이 도시에서 이동되면서 집거지구와 잡거지구의 도시조선족 중소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다. 1994년, 목단강시 조선족소학교는 2,3년전의 600명으로부터 1,000여명으로, 할빈시 도리구 조선족소학교는 200명으로부터 600여명으로 증가되었다. 대련시 조선족소학교는 1992년도의 60여명으로부터 1995년말에는 210명(그의 유아원어린이 60명)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우리민족 집거지구인 연변의 도시중에서도 연길시의 학생수는 놀라운 수자로 증가되고 있다. 1985년까지 연길시 시내구역의 조선족학교수는 4개소에 학생이 5,788명이던데로부터 1993년에 이르러 9개소로 즉 5개소학교가 새로 설립되고 학생수는 17,262명으로서 그전에 비하여 11,474명이나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연길시와 같은 곳에서는 거의 1.2년에 하나의 소학교를 새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여도 매 학교의 학생수는 2,000명좌우로 되어 학급마다 학생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학교관리와 교육질 제고에 어려움을 더하여주고 있다.

셋째, 조선민족교육의 새로운 생장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민족성원들이 더욱 넓은 범위로 이동되면서 특히 동북 3성의 일부

도시들에 우리 민족성원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그러한 곳에 조선족학교가 새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 년도 이후에 진황도시에 조선족학교(기업 자재학교)가 새로 설립되었고 1993 년에는 천진시에, 1994 년에는 북경시에 조선족학교가 새로 일어섰다.(이로서 그런 도시들에 조선민족학교가 없던 역사가 끝나고 조선민족교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북경시 조선족학교는 설립시 교원 2 명, 학생 6 명으로부터 1995 년 7 월에는 교원 25 명, 학생 175 명으로 발전하였다.그외에도 위해,청도,연대와 같은 도시들에도 조선족학교들이 조만간에 설립될 것이다.이런 곳에 조선족학교가 설립될수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우리 동포들의 수가 증가된것뿐아니라 그런 도시에서 외국기업 특히 한국기업을 더욱 많이 인입하기 위하여 조선족학교설립을 하나의 투자환경개선으로 삼아 정부적 차원에서 지지하여 나설수 있기 때문이다.바로 이러한 것들이 광대한 농촌에서 우리민족 학교가 줄어들고 우리민족의 후대들 중에서 민족어맹 즉 자기 말과 글을 모르는 인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역시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자못 크다.

모두어 말하면 새로운 역사시기에 진입한후 우리민족 사회성원들속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따라서 우리민족교육에도 새로운 발전구도가 펼쳐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사적변화와 도전앞에서 우리가 낡은 관념에 매워있을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정시하고 미래를 전망해야 하리라는 점이다.특히 상품경제의 충

격과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민족성원들이 더욱 넓은 범위로의 산재와 잡거, 농촌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의식과 우리의 능동적 노력이 없다면 민족의 발전,민족교육의 발전은 크게 영향받게 되리라는 것이다.(끝)

'自身감' 넘친 쏘씨

"자신감 넘치는 모습보니 든든..."

전방부대 방명록에 '自信感' 잘못써

전두환(金斗煥) 전 대통령이 88년 퇴임후 11년만에 처음으로 30일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 방명록에 소감을 쓰면서 '실수'를 한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敵이 때리면

우리도 때리는게 상호주의”

전 전대통령은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 안현태(安賢泰) 전 청와대경호실장 등과 함께, 자신이 근무했던 최전방. OO사단 OP(관측소)와 78년 사단장 시절 발견했던 제3땅굴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 전대통령은 도라전방대에서 부대 관계자로부터 방명록을 건네받고 붓펜을 잡았다. '第12代 大統領 金斗煥(제12대 대통령 전두환)'을 한자로 쓴 뒤 '天下第一(천하제일) 師團(사단)을 방문해서 將兵(장병)들의 씩씩하고...'까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쓰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自身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고 썼다

는 것. '自信感(자신감)'으로 써야 할 것을 '自身감'으로 쓴 것.

이를 본 측근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武運(무운)을 빈다'고 장문의 방명기를 쓰고 사인까지 끝

마쳤다.

전 전 대통령은 장병들의 대대적 환영과 박수를 받았으며, 현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군 출신답게 "포용정책은 반드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상호주의란 적이 때리면 우리도 때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도 대통령시절 북에 대해 이 정책을 썼는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용정책을 말씀하셨다"고도 했다.

/金民培기자 baibal@chosun.com

이사람

'백두산에서 10년간 도둑고 왔어요'

당명보천법 기공교실 박금룡씨

침 단 과학과 의학·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등경에 앉아 멀리 중국에 있는 사람은 물론, 4차원의 신들과 교신하고 부러진 뼈를 손 하나 대지 않고 감쪽같이 잇는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건강하게 살기공 전파

올해 50세의 재일 중국동포 박금룡(朴金龍)씨는 신비한 우주의 에너지 기(氣)를 수련하면 이 모든 것이 체험 가능하다고 말한다. 79년부터 89년에 걸쳐 10년간 백두산 천지에서 우주의 에너지 기공을 수련한 후 중국에서 기공을 보급해 왔다.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장수할 수 있는데 너무 물질에만 의존하다보니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기공을 널리 알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게 배일(來日)한 그의 포부.

15세 때 기공과 인연

박씨가 기공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5세 때(1971년). 두만강에 나가 트럼펫을 불던 소년 박씨에게 마침 거기에 나와 있던 선생이 기공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 79년 말(23세), 기공 선생에게 기공 입문을 권유받아 기공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백두산 천지에 들어가 10년을 수련했다.

박씨는 기공수련을 위해 모두가 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한다. 자연스런 호흡·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절대 부담스러워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수련을 거치면 회사 출근시 10분 정도라도 기를 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기공이란 단전 호흡처럼 자신의 신체 내의 기를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내려온 기를 받아 몸 속에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기공수련은 자기자신을 자연계와 조화시켜 7정6육(七情六欲)의 해(害)를 제거하도록 자기를 단련하는 것.

박씨의 기공교실에 나오는 사업가 이모씨(40)씨는 "처음엔 기공을 믿지 않다가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요즘엔 욕심도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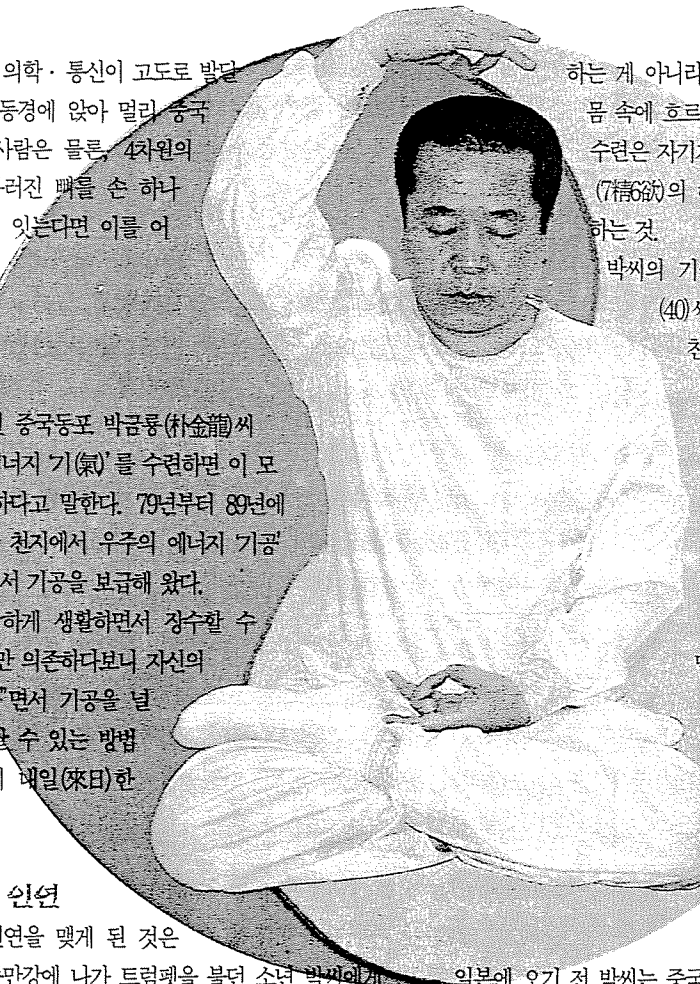
기공에서는 사람을 원신(元神)과 사신(識神)으로 나눈다. 원신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사신은 인간의 신체를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병(病)이 사신에 들어올 때도 있고 원신에 들어올 때도 있다. 사신에 들어온 병은 기공이 아니고 서는 치료가 힘들다.

간질 결석 등 기공으로 치료

일본에 오기 전 박씨는 중국에서 기공을 보급하면서 고혈압, 심장병은 물론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소녀의 병을 완치하기도 했다. 신장 결석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몸에서 돌을 빼내는 등 치료 경력은 수없이 많다.

환자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기공이 보급되고 있는 중국에서처럼 박씨는 "일본에서도 교민들 사이에 기공의 효험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난치병 치료는 물론 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오묘한 신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직접 체험을 권한다.

문의전화 3872-9960, 3871-2988



我々の夢をインターネットの上に

金 光林

「転禍為福」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何かの危機に陥った時、発想を転換させることでその危機をプラスの方向へと変えていくということらしいです。

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天池人文』が2年前に天池倶楽部によって創刊されてから、ささやかではあったが在日朝鮮族の一つのメディア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きました。2年間、完全にボランティアの労働に頼って雑誌を運営したため、編集に関わった皆さんの苦労が大変であり、天池倶楽部は費用も多く使い込みました。それでもこの雑誌が天池倶楽部の一つの求心点になり、会員同士の相互理解と交流に一定の成果を上げました。『天池人文』によって天池倶楽部の存在が日本の朝鮮族の中ばかりではなく、朝鮮族に関心を持つ日本人及び中国の朝鮮族社会にも知られたことは見逃せない点です。情報が重視される現代社会においては、自分たちの独自の情報空間を持つことは一つの集団としては不可欠なことだと思います。

しかし、現在の『天池人文』を維持していくためには毎月数万円の費用を投入しなければならず、編集がいつまでもボランティアで雑誌を編集することにも限界があります。投資と苦労が多くても近い内に収益性のある独立した雑誌になればよいのですが、どうもそれは難しい気がします。

こういう困難に直面して『天池人文』を継続させていく方法はないでしょうか。

私は『天池人文』をこれからインターネット雑誌化していくことで新しい活路を求めるべきだと思います、次のようなことを皆さんに提案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 (1) 現在、天池倶楽部はホームページを開設している途中ですが、このホームページに『天池人文』を載せて、まずは天池倶楽部の会員の中で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ている会員から利用する。今、天池倶楽部の会員の中には常時に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いる人がすでに20名程度にはなり、この数は今後急速に増え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私の予想では今後2年ぐらいで日本ではインターネット使用がもっと一般化し、留学生といってもある程度日本で落ち着いた人はインターネットを使うと思います。実際、留学生は自分でパソコンを持たなくても大学でインターネットを無料で使えるところが多いです。そのために、『天池人文』をインターネット雑誌化することは時代の流れに沿うものであり、現実的なことでもあります。
- (2) 天池倶楽部の会員の中で、インターネットを使用できる条件がない会員には、天池倶楽部の活動情報、その他必要な情報を載せた数枚程度の『天池通信』を毎月発送します。同時にこの『天池通信』には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の内容も簡単に紹介し、会員たちが積極的にインターネットを使用するように宣伝します。

- (3) 『天池人文』をインターネット雑誌化することは、費用の節約と編集労働の省力化にもっとも大きなメリットがあります。『天池人文』を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すると、まず雑誌の印刷・郵送に費用を掛けなくて済みます。インターネットを使用できる会員は天池倶楽部のホームページを通して雑誌の内容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ます。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すると、編集が雑誌を印刷し、発送する労働を大幅に省くこともできます。もちろん、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するには、相当なインターネット活用術と編集に必要な一定の設備が必要であるが、人材が豊富な天池倶楽部にとってこの問題はクリアできると思われます。とにかく、天池倶楽部のように資金力がないが、高学力の人材が揃っている団体にはインターネット雑誌は体質的にぴったり合うと言えます。

- (4) 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の編集は2、3名の専門編集と数名のボランティア編集が行い、ボランティア編集は主に原稿を提供し、雑誌編集のアドバイスをし、専門編集は雑誌の仕上げを責任を以って担当するのがどうでしょうか。専門編集には編集労働に最低限の報酬は提供すべきだと思います。
- (5) 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はこれまでのように無理に購読料、高額の後援金を納めたりせず、この雑誌の存在を支持する人たちから年に数千円の賛助金を集めてその維持費用に充てるのがいいかと思います。雑誌としての存在が定着していくと、一定の広告収入も見込めると思います。
- (6) 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はこれまでのように必ず30ページにするとかしないで、分量を減らしても、内容をもっと充実すべきだと思います。インターネットの上で公開するからには、できるだけオリジナルの文章を多く載せ、他のメディアから取った情報はある程度加工すべきだと思います。
- (7) 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していくと、インターネットを使えない人には不便を与え、天池倶楽部の大衆性に影響が出る可能性があります。インターネットの急速な普及を考えると、1、2年以内に必ず天池倶楽部の大半の人が利用できるようになると考えられます。天池倶楽部が出す活動通知、緊急な知らせなどはEメールと書面の『天池通信』で送れば全員に届くはずで、そ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する方が、『天池人文』の存在を広く知らせ、より多くの人々が我々と情報交換ができます。
- (8) 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と同時に、天池倶楽部のホームページに「天池情報広場」を開設して皆が随時にこれを利用して情報交換ができるようにすればよいと思います。
- (9) 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を作ろうとしても、実際は多くの困難が予想されますが、あまり難しく考えず一つ一つやっていけばなんと道が開けると思います。
最後に「道は最初からあるのではない。みんなが歩けば道になる」という魯迅の言葉でこの文章を結びたいと思います。

장백의 메아리— 너도나도 한마디

〔长白之声★★ 大家说一句・長白のメアリ★★皆で一言〕

*最近、天池倶楽部の会員の間で E メールによる情報交換が活発に行われており、今回はその中で『天池人文』の将来をめぐる会員同士の E メール通信の内容をここに紹介します。皆様の積極的ご意見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 天池人文』編集部

● 差出人：金 光林 宛先：宋 虎岩 日時：1999年7月2日

宋様：こんにちは。天池倶楽部のホームページのために私が前に書いた原稿を二篇送ります。 金 光林

● 差出人：宋 虎岩 宛先：金 光林 日時：1999年7月2日

Kin-sama:

送っていただいたドキュメント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も早めに天池クラブのホームページを立ち上げるために頑張ります。

金さんのメールをいただいて本当に嬉しいです。僕がいつも天池クラブでコンピュータとかインターネットとか言ってるのは我が民族が全体的に新しい技術、新しい文化に遅れていて焦りを感じたからです。

誰でも自分が得意ではない世界には抵抗感があります。でも、それを乗り越えると、もう一つの新しい世界が開ける事は多くの方が分かっていないですね。

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宋 虎岩

● 差出人：金 光林 宛先：宋 虎岩 日時：1999年7月12日

宋様：こんばんは。メールのご返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はインターネットを少し前から使っており、うまく使えなくて四苦八苦することが多いです。しかし、使ってみて確かに便利であり、情報革命の偉大さを段々と実感しています。そこで、一つこういうことを天池倶楽部に提案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天池倶楽部にとって現在一番たいへんであり、費用がかかるのが『天池人文』の維持です。毎月数万円の金がかかるばかりではなく、編集人員の苦勞もたいへんなものです。なによりも資金面での困難をクリアすることが至難だと言えます。

ところで、「転禍為福」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われわれのこの困難を発想を転換する

ことで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か。すなわち『天池人文』を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することです。現在、天池倶楽部の会員の中に E メールアドレスを持っている人がすでに15, 6名にはなり、これはよく宣伝していけば今後インターネット使用者が急速に増えると思います。インターネットの使用自体が時代の流れであるから、今後1, 2年の内に天池倶楽部の会員の大半がインターネットを使用するものと考えられます。そこで時代の流れに乗って、この際大胆に『天池人文』を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作っていったらどうでしょうか。

この問題について具体的に次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

(1) まずはインターネット使用者からこの雑誌を閲覧し、その条件にない人には天池倶楽部の活動通知と消息、その他基本情報をしばらく数枚からなる『天池消息』を発送する。

(2) 天池倶楽部が今後1年間、在日朝鮮族の中から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運動を積極的に展開し、2年ぐらいで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が在日朝鮮族たちのメディアとして定着し、定期閲覧者を百名以上に確保する。

(3) 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をホームページを通して世界に出し、まずは在日朝鮮族たちがその存在を知り、広く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それから国内の朝鮮族もこの雑誌を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て利用できるようにし、数年間でインターネットの上で確実に朝鮮族の情報空間を創造する。

(4) 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の維持費用はこれまでの『天池人文』の維持費用の半分以下になると考えられる。そして編集たちの交通費、交通移動にかかる時間などが節約できる。そのために、これまでのように購読費を納めたり、多額の後援費を納めたりせず、天池倶楽部の会費から一部補助を受け、それから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の発展を願う有志から後援費年に約3千円くらいとり、その上に一定の広告も獲得する。紙面による『天池人文』の発行費用は天池倶楽部の会費からしばらくは出し、段々とその部数を減らして数年間の内に完全な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を発行する。

(5) インターネット版『天池人文』の編集は数名のボランティア編集と2名程度の専門編集からなり、専門編集は基本的な報酬を受ける。ボランティア編集は余暇時間に原稿の提供などを受け持つ。専門編集は相当なインターネット活用技術を持つものと、相当な雑誌編集能力を持つものが担当する。

以上が私の提案ですが、もし可能性があれば今回の『天池人文』に正式に提案文を載せ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検討してください。 金 光林

● 差出人：宋 虎岩 宛先：金 光林 日時：1999年7月12日

kin-sama: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ろいろ貴重なご意見を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基本的には私は金さんの提案に賛成です。まだテクニカル問題はありますが天池人文の存在の

あり方、存在の意義、発展方向を考えればどうしても昔のスタイルでは困難だと思います。どんな事にもそ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バランスをどのように理解するのが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皆さんもご意見の提供をお願いします。 宋 虎岩

● 差出人：金 炳哲 宛先：宋 虎岩 日時：1999年7月13日

いつもお世話になり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基本的には私は金さんの提案に賛成です。無料のダイレクトメールなど世の中には多いので、そんな形式が良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宣伝効果はもっと多いと思います。 金 炳哲

● 差出人：李 東偉 宛先：宋 虎岩 日時：1999年7月14日

天池クラブの皆さん：

お久しぶりですが如何お過ごしでしょうか。皆さんのご努力で、天池クラブと天池人文は当初には想像もできないほど発展してきました。

金さんの『天池人文』を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しようという提案はよい考え方であると思いますが、問題にな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った点を次のように上げますのでご検討するよう皆さんをお願いします。

(1)『天池人文』は今まで天池クラブの内部刊行物で、どんな内容を読んでも社会的責任は問われなかったのです。それを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すると、社会向けの公開雑誌となり、個人のホームページとは違って、誰かがその内容、社会に及ぼす影響などに責任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インターネット雑誌については分かりませんが、一般的に正式に雑誌とかを発行する場合は、どんなに言論自由な国であっても出版者が法人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2)『天池人文』は天池クラブの会員皆さんの会費や援助などで運営しています。またしばらくは他の所から運営費が出る可能性が少なくて、『天池人文』がインターネットの雑誌になりますと、会社とか自分でコンピュータを持ってインターネットを使える人は誰でも見えますが、そんな条件がない人は見えなくなります。天池クラブの会員は中国から来た留学生または就職した人で、その中インターネットを使える人はまた少ないでしょう。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は普及運動の積極的展開で解決出来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会員皆さんの経済条件に関わる問題です。インターネットのいいところは誰でも知っています。しかし、個人の費用でインターネットを使用する場合、経済面でその余裕がないとどうしようもありません。だから、この問題はインターネットの使用できない会員皆さんのご意見を聞くべきであると思います。

私も今のような『天池人文』の運営の仕方は無理をしていると思っていました。何とかいい方法を考えなくてはと思いながらも妙な方法がなかったのです。インターネット雑誌

の発想をきっかけにして天池クラブと天池人文の発展と成功のために、皆の知恵を尽くして適切な運営方法を考えましょう。

李 東偉

● 差出人：崔 康泰 宛先：金 炳哲 日時：1999年7月15日

お久しぶりです。金 光林さん、宋さん、そしてこの ML に参加している天地倶楽部会員の方々、初めまして。わたしは韓国出身で現在イエエルネットというインターネット関連の会社に勤めています。インターネット関連と言っても実際インターネットに出会ってからそう長くはありません。以前から陳 万哲 さんを通じ、皆さんの活動と「天地人文」のことは承知しています。微力ながら私も何らかの協力をしたいと思いましたが、役立たずいつも申し訳ないと思っています。皆さんの「天地人文」に対する KL をみて、失礼でありながら私なりの考えを言わせていただきます。

わたしも金 光林さん、宋さんの構想が時代の流れであると思います。わたしも今から5年前に特に在日中国朝鮮民族の先駆者である天地倶楽部の機関紙としては陳万哲 さんと月刊誌を創刊・発行したことがあります。陳さんも私も金儲けが目的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やはり金にならなければいくらその趣旨がよくても続けられません。二人とも活字の魅力は経験しましたが、それ以上につらい経験でもありました。そこで、天地倶楽部のみなさんの苦勞を良く分かります。問題は天地倶楽部会員のパソコンの普及率であると思いますが、徐々にやっていけばよ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先に天地倶楽部のドメインとホームページをつくり、当分は現在の活字版と WEB を平行しながら、将来的には WEB (またはメールマガジン) にすることです。天地倶楽部の会員の能力であれば、簡単に実現できることでしょう。なにより金 光林さんがおっしゃった通り、活字の限界を克服することによって、いろいろな活動の幅が広がると思います。たとえば、ご存知の会員も多いと思いますが、今話題のインターネット無料出版サイトである「まぐまぐ (<http://www.mag2.com>)」を利用しメールマガジンを発行すれば、日本だけではなく世界中にそれもタダで配信できます。私も日本に居ながら韓国向けのインターネットビジネスのことを考えています。そのひとつがメールマガジンをういたコンテンツの提供です。天地倶楽部には能力の高い方々が多くいますので、次回にお会いできましたらそういうことも含めて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おそらく私の存在を知らない方々はこのメールをみて、生意気なヤツだな~と思うでしょう。いきなり申し訳ございません。よろしければご意見を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失礼しました。

イエエルネット チェ カンテ (崔 康泰)

韓国文化院 1999 年下半期

韓国映画鑑賞会のご案内

【7月】題 名：豚が井戸に落ちた日

(原題 =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上映日時：7月22日(木) 18:30～

製作年度：1996年(114分) 日本語字幕

監督：ホン・サンス

出演：キム・ウィソン、イ・ウンギョン ほか

【あらすじ】ソウルに暮らす男女の姿をリアルに描いた愛憎劇。愛情に飢えながらも、報われない彼らの姿に都会の孤独や虚無感が生々しく浮き彫りにされる。



【8月】題 名：族譜

(原題 = 족보)

上映日時：8月19日(木) 18:30～

製作年度：1978年(110分) 日本語字幕

監督：林権沢

出演：朱善泰、河明中 ほか

【あらすじ】日本の政府は第2次世界大戦で追い詰められ、韓国人を日本に同化させようとする政策をとり、創氏改名を迫るが…。

【9月】題 名：ムルレヤ ムルレヤ (糸車よ、糸車よ)

(原題 = 물레야 물레야)

上映日時：9月16日(木) 18:30～

製作年度：1983年(100分) 日本語字幕

監督：李斗鏞

出演：元美京、申一龍 ほか

【あらすじ】朝鮮王朝末期、進士(郡守)宅の亡き息子と婚礼させられた女の話。

【10月】題 名：コンタクト

(原題 = 접촉)

上映日時：10月14日(木) 18:30～

製作年度：1997年(104分) 日本語字幕

監督：チャン・ユンヒョン

出演：ハン・ソッキュ、チョン・ドヨン ほか

【あらすじ】昔の恋人に対する恋しさで閉鎖的な日々を送る男トンヒョンと友人の恋人に片思いをする女スヒョン。二人はパソコン通信で出会い…。



【11月】題 名：霧の柱

(原題 = 안개기둥)

上映日時：11月18日(木) 18:30～

製作年度：1986年(115分) 日本語字幕

監督：朴哲洙

出演：李永河、崔明吉 ほか

【あらすじ】秀才と才女の結婚。人もうらやむカップルが誕生したが、やがて夫の浮気、別居、和解を何度も繰り返していくうちに…。



【12月】題 名：護国八万大蔵経

(原題 = 팔만대장경)

上映日時：12月16日(木) 18:30～

製作年度：1978年度(128分) 日本語字幕

監督：張一湖

出演：金熙羅、丁姫 ほか

【あらすじ】蒙古軍の支配下で韓国の民衆が苦難の末、打ち勝っていく様を描いた歴史物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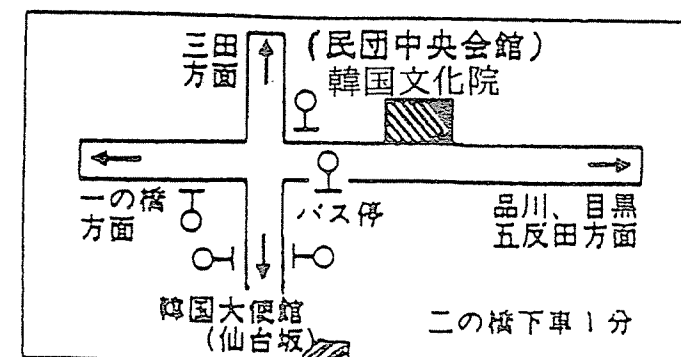
会場：韓国文化院ホール(中央会館8F)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韓国文化院

Tel 03-5476-4971

Fax 03-5476-4976

- 入 場 無 料
- 尚、本編に先立ち文化映画を上映致します。
- 皆様お誘い合わせの上、ご来場下さいますようご案内申し上げます。
- 交通：都バス『二の橋』下車すぐ
(新橋・渋谷・五反田・目黒・神谷町・広尾・虎ノ門・大門・芝公園などから)



担当：金 康 植

Tel 03-5476-4971

天池広告

国際民宿 職業案内所

- ★ 海外で苦勞されている朝鮮族のための特別サービス
1泊1.000円. 自炊可能
- ★ 民泊・下宿を探される方、どんな要望にも OK
安い部屋、高級部屋あり、団体客歓迎
- ★ 保証人・保証金不用、1ヶ月三万円で入居可能
- ★ 男女の各種職業紹介（どんな職業でも紹介あり）
- ★ 場所：JR 山の手線「鶯谷駅」徒歩2分

TEL. 03-3872-9960

H/P. 090-3520-1232

※『天池人文』編集部は在日朝鮮族事業家朴永憲社長が経営する国際民宿を朝鮮族の皆様が積極的に利用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いきなり中国から知り合いが訪ねてきたとか、新しく来日する人のために宿泊探しに困る方々は気軽に国際民宿をご利用ください。1泊1.000円の安い料金、親切なサービスが魅力です。国際民宿は中国朝鮮族が多く利用することで、一名『朝鮮族会館』とも呼ばれています。

ハンアルムビデオ

- ★ 韓国食品卸・販売
- ★ ビデオ（迅速に配達）
- ★ 海外送金

TEL. 03-5811-7881

03-5850-7831

天池倶楽部第53回定例会通知

近年来,随着国内改革开放的深化及国际环境的变化,中国的朝鲜族社会也有很大变化。中国朝鲜族的传统生活方式是集团居住在东北地区,从事于农业(主要为种水稻),过着半封闭的生活。这种生活方式对于我们朝鲜族维持自己的民族性起了重要的作用,但是反过来,也阻碍了与外界的交流及自身的发展。现在,周围环境的变化已迫使我们改变传统的生活方式。朝鲜族社会正处于一个急剧变化的过渡期。

为了更好地了解朝鲜族社会的现状,这次例会特别邀请北京大学金景一副教授做关于中国朝鲜族现状及未来的演讲。希望大家踊跃参加。

時間：1999年7月25日（日曜日）午後 6:30 ~ 9:20

場所：東京都文京区区役所ビル 3F 会議室 B

最寄り駅：JR総武線 水道橋駅 徒歩 10分（東京ドーム西側）

地下鉄丸の内線 後楽園駅 徒歩 1分

해외류학생은 얼마?

해외류학생인수통계 (1978년—1998년)				
류학국가	총인수	귀국인수	귀국하지 않은	인수 귀국률
미국	160000	30000	130000	18.8%
일본	50000	25000	25000	50%
캐나다	20000	10000	10000	50%
독일	20000	10000	10000	50%
영국	16000	10000	6000	63.6%
프랑스	11000	7000	4000	60%
오스트랄리아	10000	6000	4000	15.4%
기타	13000	2000	11000	33.3%

합계 300000 100000 200000
주: ①미국영주권을 얻은 재미 류학생
및 방문학자인수를 포함한다.
②일본자비취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오스트랄리아 자비류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근원: 워싱턴 중국문제연구소, 미국주재 중국대사관 교육처, 미국국제교육자협회 등.) (충진)

【上海29日古谷浩】
中国四川省成都市で中国初の有名人精子バンクが設立された。通常の精子バンクは一九八〇年代に発足したが「有名人」を売り物にした今回の設立趣旨は「子どもの出来ない夫婦の要求がより高まり、美男美女でそう明な子どもを希望するようになった。優生保護を一層助けるための措置」と

中国有名人精子募集

し、提供精子を募集した。約十五円（の報酬。受ける同バンクをつくった同市側は三千元から五千元の費計画出産技術指導所による用がかかる。どちらか）がと、精子は①修士以上の学歴をもつ著名な作家、記者、編集者などの「インテリ型」②スポーツ選手や俳優、高五人に提供されるため、優、芸術家といった「一型」③経営管理人材や金姻などの問題が危うい「一型」④経営管理人材や金姻などの問題が危うい「一型」の三タイプ。精子提供者に配慮しているから大丈夫。は五百元から千元（元は日本人でも構わないです）

天池人文

천지인문

CHONJI CULTUER

日本在住の中国朝鮮族が作る月刊文化・生活総合誌

일본에 사는 중국조선족들이 만드는 唯一한 잡지

在日中国朝鮮族办的独一无二的杂志

欢迎订阅天池人文

천지인문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購読を歓迎します

1部300円、年間購読料3、000円。申込は「天池人文」編集部まで電話またはFAXで。

毎月20日発行

編集部：〒105-0003 東京都港区西新橋2-13-16 多田
ビル4F-A 日・中・韓語学研究所内
TEL / 03-3592-9005
fax / 03-3592-9064

発行：天池倶楽部 CHONJI CLUB

編集委員：金炳哲、金万寿、金光林、陳万哲、李東哲（吉林）